

[연구논문]

# “매달린” 여자들: 서발턴, 목소리, 그리고 조이 하조의 시

김성훈

(세종대)

## I. 들어가면서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Can the Subaltern Speak?”)에 나타난 스피박(Gayatri Spivak)의 단언 “서발턴은 말할 수 없다”(104)는 언뜻 제 3세계 주체의 발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듯이 들려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후속 비평가들은 스피박이 서발턴의 역사를 소환하면서도 그들의 타자성을 절대화하거나, 그들을 다시 침묵 속으로 되돌린다고 비판한다.<sup>1)</sup> 그러나 이 선언은 그 뒤의 “재현(representation)은 시들지 않았다”라는 주장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스피박은 서발턴이 본래 발화 능력도 없고 자기를 대변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한다기 보다는 서발턴과 그들의 역사가 항상 서구 지식인의 입맛대로 전유, 편집되어 왔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서발턴이 실제로 말했다 할지라도 서구 지식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A Critique 247). 스피박 자신이 나중 저술에서 밝히듯이, “서발턴은

---

1) 자세한 논의는 Benita Parry, “Problems in Current Theories of Colonial Discourse”와 B. J. Moore-Gilbert, *Postcolonial Theory: Contexts, Practices, Politics*를 참고할 것.

말할 수 없다”는 서구의 재현과 엘리트 중심의 역사 기술에서 제외되고 “폐제”(廢除)된 주체들에 대한 “격정적인 통탄”이다(*A Critique* 308).<sup>2)</sup> 이 “통탄”은 “서발턴의 말을 들을 수 있는가”와 “서발턴이 어떻게 스스로 말하고 재현하는 주체가 되도록 할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서발턴을 침묵의 존재로 타자화, 주변화시켜온 서구 역사와 문학의 “인식론적 폭력”(epistemic violence)을 고발하는 동시에(“Subaltern” 90), 그 폭력으로부터 서발턴의 목소리를 복원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스피박은 이를 위해 ‘포스트’ 식민지 (여성) 지식인들이 “조직적으로” 자신의 특권을 “해제”(unlearn)시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baltern” 91).

이런 문제의식은 스피박이 특히 주목하는 “여성”(woman)이라는 개념과 맞물려 서구 페미니스트들에게 집중된다. 스피박이 보기에 그들은 제 3세계 여성, 혹은 포스트 식민지 여성들의 구체적 현실과 “계급”적 차이는 외면한 채, 서발턴의 경험을 백인 여성들의 그것과 동질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서구 페미니스트들이 특권적으로 “여성”을 단일화시키는 것, 즉 “자국화”(naturalization)하는 것은 서발턴 여성의 목소리를 폐제할 뿐이다(*In Other Worlds* 187-188).<sup>3)</sup> 흑인 시인이자 페미니스트 오드리 로드(Audre Lorde)는 “주인의 도구는 주인의 집을 결코 해체하지 않는다” “여성 해방”이라는 대의 아래 3세계 여성들의 인종적, 문화적, 젠더적 “차이”를 외면한다면 그들은 결국 가부장적 억압과 공모의 관계

2) “폐제”(foreclosure)는 스피박이 『탈식민이성비판』(*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에서 “토착 정보원”(native informant)이라고 새롭게 지칭하는 서발턴의 존재가 역사, 철학, 문학에 나타난 서구 주체 형성의 재현 과정에서 어떻게 지워지는지 논증하기 위해 라강의 정신분석학 용어를 차용한 것이다(4).

3) 이를테면,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가 『중국 여성에 대하여』(*About Chinese Women*)에서 중국 여성 군중을 특권 의식을 가지고 응시하면서 그들을 침묵 속의 집합적 존재로 서술하는 행위는 문제적이다(“French Feminism” 136). 스피박이 보기에 타자에게서 자아를 잃어내는 이런 유아론적 재현을 보여주는 서구 페미니즘은 제 3세계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에 있는 것이라는 강력한 비판이다. 유색 여성(women of color) 주체와 시 쓰기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발전시키면서 유색 여성의 시 쓰기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시는 이름 없는 것에 이름을 주어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Poetry is the way we help give name to the nameless so it can be thought”)이라는 것이다(37). 시는 지적, 언어적 유희의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 유색 여성으로 하여금, 억압되고 침묵된 경험, 감정, 힘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지녔기에 그들의 삶과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서발턴 개념을 고려하여 로드의 주장을 살짝 바꾸면 “시는 목소리 없는 것에게 목소리를 주어 그것이 들리게 하는 것”(Poetry is the way we help give voice to the voiceless so it can be heard)이라고 할 수 있겠다. 로드는 유색 여성이 식민주의적 억압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사회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시에서 찾은 것이다(8).

데뷔 이후 꾸준히 미국 평단의 찬사를 받아왔고 이제는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가는 머스코기/크릭(Muscogee/Creek) 시인 조이 하조(Joy Harjo)는 토착 및 유색 여성이 주체적으로 말하는 것,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깊이 천착해왔다. 하조는 서구적 용어인 페미니즘이 토착 미국인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지만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가치와 개념은 받아들여 “권리강화”(empowerment)라고 새롭게 명명한다(Coltelli 60). 또한 시인은 “당신의 침묵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로드의 말을 20세기 말 토착 미국인 및 다른 유색 여성들에게 분명히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여준다(Coltelli 58). “권리강화”는 수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적극적인 자기 목소리의 발화를 통해 이루어 진다는 의미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미국 문단의 큰 주목을 끈 『그녀에게는 말 몇 필이 있었네』(*She Had Some Horses*, 1983)에 실린 하조의 시적 분신(alter ego) 노니 데이라이트(Noni Daylight)가 화자로 등장하는 시들이나 「알바 벤슨 그리고 말하기를 배운 사람들을 위해」(“For

Alva Benson and for Those Who Have Learned to Speak”) 같이 자주 인용되는 시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아메리칸 북 어워드(American Book Award) 수상작 『미친 사랑과 전쟁 속에서』(*In Mad Love and War*, 1990)의 시들은 전작에 나타난 주제의식들을 한층 더 다층적인 은유들을 통해 표현한다. 이 작품들은 하조가 1960, 70년대의 인권운동과 이른바 ‘제 2차 페미니즘 운동’에서 파생된 블랙 페미니즘(Black Feminism), 특히 오드리 로드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과 ‘포스트’ 식민주의의 페미니즘과의 연결 가능성을 보여준다.<sup>4)</sup>

그간 국내의 조이 하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외국 비평의 큰 틀을 계승, 발전시킨 생태비평적 접근에서 시작하여, 하조 시와 토착민 신앙 및 구전 전통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하조의 사랑시(love poems)에 나타난 에로스의 양상에 관한 연구 등으로 점차 다양해져 왔다.<sup>5)</sup> 그러나 하조의 시를 ‘포스트’ 식민주의의 페미니즘 관점을 통해 접근한 경우는 없다.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서발턴 개념으로 하조의 시를 자세히 분석한 경우도 없다.<sup>6)</sup> 이후 본 논문이 자세히 다루는 『그녀에게는 말 몇 필이 있었네』의 「13층 창문에 매달린 여자」(“The Woman Hanging from the Thirteenth Floor Window”)와 『미친 사랑과 전쟁 속에서』의 「이상한 열매」(“Strange Fruit”)는 인권, 존엄성, 자기 결정권을 모두 박탈당한 채 삶과 죽음의 경계에 매달린 서발턴 여성 주체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시는 식민주의와 가부장의 이중적 억압 아래 소거된 서

4) 하조는 『그녀에게는 말 몇 필이 있었네』에 실린 시 「앵커리지」(“Anchorage”)를 로드에게 헌사하는 한편 『미친 사랑과 전쟁 속에서』에서는 로드가 자신에게 “전사적 자아”(warrior self)를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주었다며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np). 이는 하조와 로드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5) 자세한 논의로는 각각 윤희수, 최동오, 정은귀, 박연성, 이승례를 참고할 것.

6) 일반적인 포스트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하조의 시를 논의하거나 스피박을 간략히 언급하는 경우는 몇몇 있다. Azfar Hussain, “Joy Harjo and Her Poetics as Praxis: A “Postcolonial” Political Economy of the Body, Land, Labor, and Language”와 Angelique Nixon, “Poem and Tale as Double Helix in Joy Harjo’s *A Map to the Next World*”를 참고할 것.

발턴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 타자성과 주체성 등의 문제를 고찰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 II. “그녀는 말할 것이다”: 13층 창문에 매달린 서발턴

「13층 창문에 매달린 여자」는 자살 직전인 어느 이름 없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시는 매우 생생하고 강렬한 이미지와 일견 쉽게 읽히는 네러티브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 때문에 시의 행 사이 사이에 함축된 역사, 정치적 함의, 그리고 이 “매달린” 여성 주체의 구체적 경험과 정체성의 문제 등 많은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랭은 “13층 창문에 매달린 여자”의 이미지를 “이름 없는 두려움”(unnamed fear)에 대한 은유로 일반화시켜 읽는다(Lang 44). 도시 대인디언 보전구역(Indian Reservation)이라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대략적으로만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최동오 178). 그러나 「13층 창문에 매달린 여자」에 표현된 “두려움”은 이름 있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실과 연결된 감정이다. “13층에 매달린” 여성 주체가 처한 공간과 상황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구체적인 현실을 소환하는 시의 오프닝부터 살펴보자.

그녀는 13층 창문에 매달린 여자다. 임대  
아파트 콘크리트의 창틀을 꼭 붙든 그 여자의  
손이 하얗게 질려 있다. 시카고 동부의 13층  
창문에 매달린 그녀의 머리 위로 새들이 빙빙  
돌며 난다. 그 새들은 그녀의 후광이 될 수도,  
곧 그녀를 으깨 버릴 유리 폭풍이 될 수도 있다.

그녀는 해방될 거라고 믿는다.

She is the woman hanging from the 13th floor window. Her hands are pressed white against the concrete moulding of the tenement building. She hangs from the 13th floor window in east Chicago, with a swirl of birds over her head. They could be a halo, or a storm of glass waiting to crush her.

She thinks she will be set free. (1-7)

삶(“후광”)과 죽음(“유리 폭풍”) 사이에 매달린 자신의 몸무게로 인해 여자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다. 그것은 그녀가 매달려 있는 “어스름해진” 저녁에도 또렷이 보일 만큼 그녀가 짙어진 삶의 무게를 강조한다. 화자는 담담한 어조로 이 여성 주체의 과거를 요약하는데 그녀는 딸(마가렛) 하나와 두 아들(카를로스, 지미)의 어머니이고, “그녀의 어머니의 딸”이며, 두 명의 전 남편 사이의 “여러 조각들”(several pieces)이다 (9-13). 이 간단하지만 전형적인 프로필은 그녀가 독자적인 인격, 정체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자녀”와 “남편”으로 대변되는 가정 내의 역할을 통해서만 인식되는 비(非)주체적인 주체임을 보여준다. 이 매달린 여자는 깨진 거울 “조각”으로서 다른 주체만을 비추는 파편적 존재, 혹은 피동적인 대상으로서의 주체, 즉 타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타자적 삶의 무게는 정동적(情動的)인 다음 연에 나타난 여자의 몸에 대한 묘사를 통해 더 강조된다.

..... 아이들을 낳은 그녀의 배는  
물렁물렁하고, 닳아빠진 리바이스 청바지는 벗겨져 그녀의 허리춤  
그리고 그녀의 발, 그 다음엔 그녀의 심장 아래서 흔들거린다.  
여자는 매달려 있다.

..... Her belly is soft from  
her children's births, her worn levis swing down below

her waist, and then her feet, and then her heart.  
She is dangling. (28-32)

시인은 증척적인 이미지리를 통해 단지 한 여자만 매달린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도시 하부에서의 빈곤과 고단함을 집약하는 “청바지”가 그녀의 몸 끝에 매달려, 또 다른 매달린 여자의 이미지리를 연출하는 것이다. 이 “흔들거리는” 몸들의 이미지리는 단순한 자살적 행위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없는 육아노동 및 가사노동,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타자적 삶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형상화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여자의 삶이 “보편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며, 타자적 주체간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비록 불완전한 거울이지만 “그녀는 그녀를 보며, 자신들을 보며 서 있는 / 그 아파트의 모든 여자들”을 비추기 때문이다(14-15). “청바지”처럼 그녀의 몸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모든 여성들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자화된 “여성” 주체를 형상화하는 이 드라마틱한 이미지리가 무명의 매달린 “그녀”의 실체에 대한 연쇄적인 질문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그녀는 누구인가? 그녀는 왜 시카고 동부의 13층 창문에 매달려 있는가? 그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녀는 정말 “해방될” 것인가?

둘째 연의 “모든 여자들”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매달린 여자”의 이미지리에 집중한 분석이 이 질문들에 충분한 답을 주는지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러들로우(Jeannie Ludlow)는 프랑스 페미니스트 루스 이리가레이(Luce Irigaray)의 “여성”(woman) 알레고리에 기대어 이 “13층 창문에 매달린 여자”를 일반화된 주체에 대한 은유로 파악하는 독법을 제시한다. 이리가레이의 선언대로 “여성은 정체성을 밝힐 수 없는 보통명사”(a common noun)이기 때문에 이 “매달린 여자”를 무정체성의 존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28). 그러나 이러한 독법은 유용한 동시에 문제적이다. 앞서 논의한 스피박과 로드의 서구 페미니즘 비판을 상기할

때, “13층에 매달린 여자”를 시의 수사에만 매달려 이리가레이식으로 읽어내는 것은 이 “여성”의 동질성, 단일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이 주체가 함의할 수 있는 다양성과 현실적 문제를 희석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여성을 정의할 수 없는 주체로 파악하는 것은 서발틴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인식적 폭력”을 재생산하는 것과 다름 없다. 이 시의 “she”라는 대명사는 “woman”이라는 보통 명사가 나타내는 일반성, 동질성(heterogeneity)과 다르며, 그녀가 폐제된 상태인 “13층”밖으로 나와 매달린 것은 자신이 다른 유형의(heterogeneous) “she”임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13층에 매달린 여자”의 이야기가 “I”가 아닌, 3인칭 “she”를 통해 전해지는 방식을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매달린 여자”는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발화하지 않으며 그녀의 목소리와 생각은 시적 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들린다. 이것은 물론 “나”라는 개인성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자가 매달린 “13층 창문”과 긴밀히 연관된다. “13층 창문”은 서발틴 주체의 지위짐에 대한 은유와 현실을 모두 암시하는 공간이다. 러들로우 자신도 지적하듯이 서구에서 (“13일의 금요일”과 엘리베이터나 빌딩에서 제거된 13층 표시 등의 경우처럼) “13”이라는 숫자가 인식되는 방식이 그것을 암시한다(28).

이 여성의 경험은 “모든” 여성을 대변하는 보편적인 것인 동시에 특정 인종 및 계층을 가리키는 특수한 것이다. 서발틴 개념이 서구 이론에 저항하기 위해 동원되는 알레고리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인 실체를 가리키며 또 그렇게 설득력을 얻듯이, “13층 창문에 매달린 여자”는 하조의 시적 은유인 동시에 ‘실화’로서 힘을 갖는다. 하조는 자신이 이 시를 처음 낭송한 후 많은 인디언 여성들이 찾아와 이런 여자를 실제로 목격했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아마도 많은 여성들이 이와 같을 거예요. 이건 정말로 있었던, 아마 지금도 계속 있는 이야기니까요” (“The Creative Process” 40)라고 역설한다. 이 시를 쓸 때 위스콘신(Wisconsin)에서 온 한 인디언 여성을 떠올렸다는 하조의 말을 통해 이 매달린 여자가 오대



호 근처의 오지브웨(Ojibwe) 부족 출신임을 추측할 수 있다(ibid.). 시에서 그녀의 고향이 “먼 / 북쪽”(the farther/ north)이라는 부분도 이를 가리킨다(17-18).<sup>7)</sup>

하조는 이렇게 이 무명의 서발턴 여성에게 구체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며 이 주체의 자살적 행위를 차이를 지우는 알레고리로부터 구해낸다. 러들로우의 주장과는 달리 시의 공간적 배경인 “시카고 동부”(east Chicago)는 이 매달린 여성의 이미지리에 역사성과 정치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시카고 동부”는 소외된 계층의 공간, 즉 아프리카계, 히스패닉계, 토착 미국인 등의 하위주체들이 뒤엉켜 거주하는 게토(ghetto)이다. (러들로우를 비롯한 기존 논의가 거의 주목하지 않는) 시 후반부에서 화자는 그녀가 매달린 아파트가 “인디언 거주 구역”(the Indian side of town)에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29). 이는 “시카고 동부”는 문명화 혹은 미국화라는 이름으로 20세기 중, 후반 토착민에게 가했던 미 연방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 정책인, 이주정책(Relocation Policy)을 암시하는 제유(提喻)임을 보여준다.<sup>8)</sup> 간단히 말해, 이 시의 “시카고”는 식민주의 공간이다.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 하부의

7) 한편 이 시는 시인이 17세에 아이를 낳고 기른 싱글맘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투영한 것이기도 하다(Coltelli 62). 이 자전적 요소는 『미친 사랑과 전쟁 속에서』의 「멧돼지」(“Javelina”)에도 표현된다.

8) 시카고는 1950, 60년대 미 연방정부가 토착 미국인들의 여러 부족들을 해체시키고 그들을 주류 사회에 편입, 동화시키기 위해 실시했던 종료 정책(Termination Policy)의 일환인 이주정책이 실시된 샌프란시스코, 덴버, 피닉스, 로스엔젤레스, 댈러스 등의 대도시 중 하나이다. 이 정책으로 인해 인디언 보전구역(Reservations)에 거주하던 많은 토착민들이 대도시로 이주하여 직업훈련을 받고 구직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생활과 현대적 직업 활동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토착민들은 이주 초기 문화적 혼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고, 소외와 고립, 자살, 가난, 알코올 중독 등의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었으나 연방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결과적으로 100개 이상의 부족이 사라졌고,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60% 이상의 토착민들이 보전구역을 떠나 도시에 거주하여 토착 전통과 문화를 상실하는 계기가 된다. 자세한 논의로는 Donald Fixico, *Termination and Relocation: Federal Indian Policy*를 참고할 것.

토착 여성들은 토착 남성들의 알코올 중독 및 가정 폭력, 성폭력/근친 강간, 또한 백인 남성의 성폭력 등 지속적인 이중 삼중의 고통, 억압과 착취에 노출되어 온 것이다(Smith 121; Gunn Allen 191). 「13층 창문에 매달린 여자」는 여러 이미지리의 병치를 통해 시카고로 이주한 이 토착 여성이 도시의 삶 속에서 자신의 말을 잃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도시의 잡다한 소리들을 들으며, “꿈 속으로 빠져들 수 있게” 잠을 청하지만 “일어나, 일어나”라고 그녀를 깨우는 “거대한 빛의 남자들”의 지배적인 목소리를 듣는다(37-38).

여기서 이런 지배적 목소리에 대한 암시가 어떠한 역사적 함의를 지니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콜럼버스의 소위 ‘신대륙’ 발견 이후 토착민들의 역사는 매우 남성중심적이다. 토착 미국인들의 구전 전통이나 반 식민주의 저항조차도 남성의 목소리로 채워져 있다. 예컨대, 19세기에는 쇼니(Shawnee) 리더이자 전사 티쿰시(Tecumseh), 라코타(Lakota) 전사 크레이지 호스(Crazy Horse), 라코다 지도자, 주술사 시팅불(Sitting Bull)같은 전투적인 남성 전사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20세기 중, 후반에는 러셀 민스(Russell Means)같은 운디드 니(Wounded Knee)에서의 폭력적 저항이 정치적 담론의 대세였다. 토착민의 남성적, 전사적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식민주의 담론을 통해 낭만화되거나 내면화되었다(Gunn Allen 192-193). 반면에 토착 여성은 순응적이고 동화된 존재로 백인 남성에게 충성하는 “좋은 인디언”(a good Indian)이거나 그들의 성적 판타지의 대상으로 묘사되었다(Green 703). 식민지와 서부를 탐험하고 개척하는 백인 남성을 조력하고 그들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 포카혼타스(Pocahontas)나 세커저위아(Sacagawea)같은 인디언 ‘공주’들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유럽인의 아메리카 대륙 정복은 그렇게 젠더화된 것이었다(Smith 124).

이렇듯 남성중심의 미국 역사, 토착민 역사에서 이 여성의 잃어버린 목소리는 오지브웨 보전구역의 “호수”와 같다. 여자는 “13층 창문에 매

달려” 자신의 고향에서 “철썩이는 미시건호”를 떠올리는데, 그 호수의 “부드러운 속삼임”이 시카고에서는 단지 “아스팔트에 파묻혀 버리는” 소음처럼 지워질 뿐이다(19-23). 이 서발턴 여성은 이처럼 서구의 재현 체계가 온전히 포섭하지 못하는 (또는 포섭하지 않는) 부재의 공간, 즉 ‘잉여’의 공간에 매달린 것이라 할 수 있다.<sup>9)</sup> “13층 창문에 매달린 여자”의 자살적 행위는 미국 사회의 인종, 젠더, 계급의 층위에서 가장 하위를 점유하며 그 동안 역사와 지식의 영역에서 철저히 타자화되어 온 토착민, 특히 토착 여성의 하위주체성(subalternity)을 드러내는 행위이다.<sup>10)</sup> 그렇다면 서발턴으로서 그녀의 몸은 “여성”이라는 보편적 은유인 동시에, 서구적 주체의 인식 혹은 페미니스트들의 동질성 담론이 포섭하지 못하는 차별화된 몸을 나타낸다. 스피박이 주장하듯이 제 3세계 혹은 유색 여성의 “몸”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생산 노동에 언제나 필수적으로 얽혀 있는데, 그 중 “가장 노동집약적인 생산 단계”(the most labor intensive stage of production)에 집중되어 있다(*A Critique* 275). 마찬가지로 “매달린” 토착 여성의 몸은 미국이 대변하는 자본주의의 가치로 환원할 수 없는 출산, 육아, 가사 등의 필수적인 “감정 노동”과 도시의 최하층 경제

9) 대중들이 영화 「늑대와 춤을」(*Dance with Wolves*, 1990)에서 케빈 코스트너라는 백인 주체의 들리로서 “고결한 야만인”(Noble Savage)들에 대한 재현만 기억하고, 그들이 미국의 정착형 식민주의에 어느 부족보다 더 강력히 저항했던 라코타(Lakota)인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마르크스주의적 표현을 빌리면 미국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와 다른 없는 토착민과 그들의 역사는 미국 자본주의의 잉여 가치(surplus value)를 위해 영화 속의 이미지로만 소환되어 착취, 소비된 후 재차 소외(alienation)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미국 대중문화, 특히 헐리우드에서 “Noble Savage”의 이미지가 어떻게 생산, 재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Ward Churchill, *Fantasies of the Master Race: Literature, Cinema, and the Colonization of American Indians*, pp. 178-240을 참고할 것.

10) 오사지(Osage)출신 학자 로버트 워리어(Robert Warrior)는 스피박이 사용한 서발턴 개념과 토착 미국인학(Native American Studies)의 연결점을 모색하면서 토착 미국인들은 두 가지 형태의 하위주체성 혹은 서발턴리티를 지녔다고 주장한다. 즉 경제적으로 “극단적이고 끔찍한 빈곤”과 “정치적으로 철저히 외면당하는” 상태라는 것이다(Warrior 86).

를 담당함으로써 식민주의와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최종 심급’(the last instance)인 것이다(Spivak *In Other Worlds* 224).

이러한 하위주체성을 지닌 채 삶과 죽음의 경계에 “매달린 여자”의 머릿속엔 과거의 모든 것들, 자녀들과 아버지, 어머니, “자신이 되었던 모든 남자들의 / 여자들”과 “자신의 피부색,” 자신이 헤매고 다녔던 “시카고 거리,” 그리고 고향의 “폭포와 소나무들,” 달빛이 비치던 밤”과 “시원한 폭풍우”가 주마등처럼 스쳐간다(51-57). 이 삶의 기억과 굴곡들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 인생에서 잃어버린 아름다움에 대해 한탄”하게 한다(62-63). 하지만 「13층 창문에 매달린 여자」은 서발턴 여성 목소리의 폐제와 그로 인한 절망이라는 주제에 호소하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시인은 여자의 매달림이 비극적이지만 유의미한 행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13층 창문에 매달린 여자는 다른 목소리들을  
듣는다. 그들 중 몇몇은 그녀를 떠받칠 테니  
뛰어내리라고 밑에서 소리친다. 다른 여자들은 보도에  
앉아 소리 죽여 흐느끼며 자신들의 아이들을 일으켜 꽃처럼  
품에 안는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인 듯 도울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13층 창문에 매달린 여자이고  
그녀가 자신의 손가락, 자신의 피부, 자신의  
망설임의 실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안다.

And the woman hanging from the 13th floor window  
hears other voices. Some of them scream out from below  
for her to jump, they would push her over. Others cry softly  
from the sidewalks, pull their children up like flowers and gather  
them into their arms. They would help her, like themselves.

But she is the woman hanging from the 13th floor window,

and she knows she is hanging by her own fingers, her  
own skin, her own thread of indecision. (41-48)

매달린 여자와 그것을 지켜보는 여자들은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같거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매달린 그녀는 자살적 행위를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뿐이지만, 결국 시의 네러티브를 이끌어 가는 능동적인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스피박은 제 3세계 여성 주체는 다른 여성들이 지닌 행위주체성(agency)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주체성 또한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Teaching for the Times” 7). 억압당하는 여성 주체 서로가 연대함으로써 발화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매달린 여자”의 말 없이 매달린 행위는 자신과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는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를 촉발하여 서발턴의 발화와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조이 하조는 「13층 창문에 매달린 여자」의 “매달린 여자”가 ‘최종 심급’인 자신의 몸을 스스로 매달아 뒤늦게나마 자신에게 생사 결정권을 되돌려주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서발턴 여성 주체의 발화 가능성과 행위주체성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물론 시인은 매달린 여자가 “시카고 동부의 13층 창문에서 떨어[지는지], / 혹은 자신을 되찾으러 기어올라[가는지]” 보여주지 않는 열린 결말을 취한다(67-68). 하지만 “그녀는 말할 것”(She would speak)이라고(61) 단언함으로써 매달린 여자를 단지 침묵하는 서발턴으로 버려두길 거부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시 전체의 시제가 현재형 혹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과, 매 연마다 “그녀가 13층에 매달려 있다”(She is hanging from the 13th floor)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반복”(repetition)은 토착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기법 중 하나인데(김성훈 44), 하조는 이 기법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이 매달린 행위의 실제성, 현재성을 깨닫도록 유도한다(“The Creative Process” 38). 따라서 시의 열린 결말은 “서발턴은 말할 수 있

는가?”에 대한 열린 대답이다. “13층에 매달린 여자”가 아직까지 직접 말하지 않았고 현재도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목소리로 스스로 “말할 것”임을, 그때까지 그녀는 계속 매달려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토착 미국인들에게 미국 식민주의는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 III. “난 노래하고 싶어”: 올리브 나무에 매달린 서발턴

「이상한 열매」는 『미친 사랑과 전쟁 속에서』에서 유일하게 흑인 여성을 주제로 하는 시로서, 흑인 및 유색 인종 주체를 초법적으로 단죄하고 침묵시키는 행위이자 백인 지배계층의 극단적이고 비인륜적 억압과 폭력을 상징하는 린치(Lynching)을 다룬다. 이 시는 「13층 창문에 매달린 여자」처럼 억압된 서발턴 여성 주체의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알바 벤슨 그리고 말하기를 배운 사람들을 위해」나 「애나 매 픽토 아퀴시를 위해」(“For Anna Mae Pictou Aqash”)의 경우처럼 이름이 밝혀진 특정 여성 재클린 피터스(Jacqueline Peters)를 추모하는 시이다. 하조에 의하면 재클린은 1985년 KKK가 티모시 리(Timothy Lee)에게 가한 린치에 저항하기 위해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의 캘리포니아 라파예트(Lafayette)지부를 발족시키고자 노력하던 중 1986년 자신 또한 린치를 당한 여성이다. 발견 당시 그녀는 올리브 나무에 목 매달려 있었다(12). 시인은 MELUS 인터뷰에서 1981년에도 여전히 린치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이상한 열매」를 쓰게 되었다고 밝힌다(Jaskoski 12). 문제는 LA경찰은 티모시 리와 재클린 피터스의 케이스 둘 다 단순 자살로 처리했다는 사실이다.<sup>11)</sup> 하조는 경찰과 달리 재클린이 린치를 당한 것으로 확신하고, 자신의 시적 상상 속에서 이 잊혀진

11) 1986년 2월 11일, 6월 24일, 6월 26일자 *Los Angeles Times* 기사 참고.

서발턴 주체의 목소리를 재생시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력과 미국 사회의 가부장적 억압을 비판한다.

물론 여기서 흑인 인권운동 역사를 고려할 때 ‘지식인’ 계층에 속할 수 있는 젊은 인권운동가인 재클린과 같은 주체를 과연 서발턴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서발턴 개념이 도시 하부 프롤레타리아 여성이나, 비지식인, 노동자 혹은 농민 계급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온당치 않다. 이 개념은 인도 여성같은 제 3세계 토착 여성에서 시작하여(“Subaltern” 78), 젠더, 인종, 종교, 문화적으로 주변부에 속하는 사람들, 즉 식민주의 혹은 제국주의 지배체층의 헤게모니에 종속되거나 배제되는 타자 집단으로 그 범주가 확장되어 온 것이다(태혜숙 117). 예컨대 스피박은 이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에서 젊은 민족주의자 부바네스와리 바두리(Bhuvanewari Bhaduri)의 자살 이유를 추적하면서 서발턴 개념의 확장을 시도한다. 스피박은 바두리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사티”(Sati, 과부희생제의)의 층위에서도, 민족독립운동의 층위에서도 바두리가 자살한 이유를 입증할 수 없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이 중층의 공간에서 여과된 것이다(103-104).<sup>12)</sup> 바두리는 가부장제 관습과 민족주의적 소명, 그리고 식민주의 그늘에서 “사라지”(disappears)는 유색 여성을 대표한다(“Subaltern” 102).

사실 하조가 자신의 시 「애나 매 픽토 아퀴시를 위해」에서 다룬 믹맥(Micmac) 부족 출신의 젊은 인권운동가 애나 매 픽토 아퀴시(Anna Mae Pictou Aqaush)는 이와 유사한 경우다. 시인에 의하면 애나 매는 토착민 인권운동이 활발하던 1976년 파인 리지 보전구역(the Pine Ridge

12) 바두리는 특이하게도 생리 기간 중 아버지의 자택에서 자살했는데, 스피박은 그녀가 간통이나 임신에 의해 자살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사티 관습을 바들기 위해 생리 기간을 택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거의 10년 후 바두리는 민족주의자이자 무장 독립투쟁단체 멤버였던 것으로 밝혀지는데, 이 사실은 바두리가 자신이 맡은 임무를 완수할 수 없어서 자살을 택한 것은 아닌지 추측하게 한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추측일 뿐이다.

Reservation)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FBI는 그녀의 시신을 부검한 후, 후두부 총상을 사인으로 밝혔으나 누가 왜 그녀를 살해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In Mad Love* 7).<sup>13)</sup> 하조에게 애나 매 살해의 진범이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애나 매의 목소리가 FBI와 남성중심적이었던 당대 토착민 인권운동 사이에서 소거되었다는 것이다. 시인은 「애나 매 픽토 아퀴시를 위해」에서 애나 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녀가 “침묵을 강요당했”(warned to be silent)지만 자신의 “목소리 찾았”(found her voice)고, 그녀의 “영혼”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모든 여성들 사이에 있다고 노래한다(7).

다시 「이상한 열매」의 재클린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인종과 시대, 상황은 다를지라도 그 죽음의 진실을 알 수 없는 흑인 인권운동가 재클린의 매달림도 바두리, 그리고 애나 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스피박이 바두리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조는 (그리고 대중들은) 백인 우월주의와 지배적인 공권력의 공모에 의해 제거된 재클린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하조는 *MELUS* 인터뷰에서 재클린의 지워진 목소리를 시적 상상력으로 재생시켜야 할 필요성을 밝힌다. “누군가가 그녀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재클린 피터스를 알 수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재클린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작가로서 제가 하는 일이고, 의무입니다”(Jaskoski 12). 「이상한 열매」를 쓸 당시(1986년에서 1989년 사이) 하조가 스피박의 “서발탄을 말할 수 있는가?”(1988년 출간)를 읽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토착 지식인으로서 하조의 책임 의식은 “여성

---

13) 애나 매 사건은 토착민 역사에서 긴 논쟁거리였다. 90년대까지 FBI는 애나 매와 그녀가 속했던 급진적인 토착민 민족주의 단체 American Indian Movement의 몇몇 리더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희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AIM 측에서는 FBI가 토착민 인권운동 단체를 와해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2000년대에 들어서야 AIM의 몇몇 멤버들이 애나 매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아 복역 중이다. 2014년 4월 25일자 *New York Times* 기사 참고.



지식인들은 지식인으로서 거절할 수 없는 무거운 임무를 지고 있다”(The female intellectual as intellectual has a circumscribed task which she must not disown with a flourish)는 스피박의 선언과 긴밀히 연결된다 (“Subaltern” 104). 하조의 시는 남북 전쟁 이후 린치를 당한 수많은 흑인들, 그리고 1960, 70년대 인권운동 중 린치를 당한 많은 인권운동가들처럼 목소리가 소거된 흑인 서발턴 여성 주체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것이다.

시인이 서발턴 여성 주체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방식은 「이상한 열매」와 루이스 앨런(Lewis Allan)이라는 필명의 유태계 남성 시인 아벨 미어로폴(Abel Meeropol, 1903~1986)이 쓴 동명의 시 「이상한 열매」(“Strange Fruit”)를 비교할 때 잘 드러난다.<sup>14)</sup> 하조의 시는 시인이 밝히듯이 미어로폴이 1937년 린치에 반대하여 쓴 이 짧은 시의 제목을 차용한 것인데, 두 시는 같은 주제에 대해 상당히 다른 접근을 보여준다. 미어로폴의 시 「이상한 열매」는 린치당한 흑인들의 시신에서 한 발자국 물러난 관찰자의 시각으로 그 모습을 객관적이고 집합적으로 묘사한다. 예컨대 미어로폴은 시신들이 달린 모습을 “멋진 남부의 전원 풍경”(Pastoral scene of the gallant South)과 대비시켜 “포플라 나무에 달린 이상한 열매”(Strange fruit hanging from the poplar trees)로 은유화하면서, 마지막 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까마귀가 뜯어먹고  
비를 맞고 바람을 빨아들이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이상하고 슬픈 열매.

Here is a fruit for the crows to pluck,

---

14) 이 시는 빌리 할러데이(Billie Holiday, 1915~1959)가 동명의 노래로 불러 대중적인 인기와 논란을 함께 일으키고 흑인 인권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for the rain to gather, for the wind to suck,  
 for the sun to rot, for a tree to drop,  
 here is a strange and bitter crop. (902)

시인은 린치 희생자들에 대한 자신의 연민 어린 시선을 강조한다. 그러나 흑인들에게 가해진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극단적 폭력 자체를 고발하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들의 관점, 생각, 목소리를 들려주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그들의 “매달린” 몸은 대상화되어 시적 소재에 그칠 뿐 이야기의 주체로 발전하지는 못한다. 물론 여기서 미어로폴의 시 (그리고 빌리 할러데이의 노래)가 지닌 역사, 문화적 가치와 영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흑인 인권운동의 선구적인 이 시에서조차 서발턴 주체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소거되어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어로폴 처럼 아무리 ‘급진적인’ 남성 시인이라 할지라도 은연 중에 자신의 시선이나 목소리로 서발턴의 목소리를 대변 혹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푸코나 들뢰즈 같은 “좌파” 서구 지식인들이 억압받는 집단을 대신해서 말할 때 자신들을 “투명한”(transparent) 혹은 “부재하는 비재현자”(the absent nonrepresenter)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결국 임의의 관점을 투영하여 재현의 행위를 뒤풀이할 뿐이라는 스피박의 지적은 이를 뒷받침한다(“Subaltern” 70-71).

토착 여성 시인으로서 하조는 재클린 린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자신의 「이상한 열매」에서 남성 시인 미어로폴의 재현 방식을 수정한다. 목 매달린 시신들을 아무 말도 없고 저항도 없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 그 이상한 열매”로 묘사하는 미어로폴의 시와 달리 하조의 시는 서발턴 주체가 스스로 말하도록 함으로써 그녀를 대상화로부터, 침묵하는 타자의 이미지로부터 구해낸다. 일인칭 서술(“I”)의 화자를 통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달하여, 흑인을 향한 인종주의적 폭력을 원거리의 이미지리를 통해서만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미어로폴의 시와 차별성을 두는 것이다. 목

매달린 상태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KKK 및 백인우월주의자들의 폭력에 저항하는 이 화자의 목소리는 특히 시 후반부에서 강력하게 울린다.

난 잘못된 게 없어. 당신들 어머니에게서 뭘 훔치지 않았어. 내 남동생이 당신들 아내를 범한 적도 없어. 당신들 집에 침입한 적도, 당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적도 없다고. 제발, 꺼져, 두건 쓴 지옥의 유령들아.

I didn't do anything wrong. I did not steal from your mother. My brother did not take your wife. I did not break into your home, tell you how to live or die. Please. Go away, hooded ghosts from hell on earth. (11)

화자의 항변은 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린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폭로한다. KKK 및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린치당한 흑인들에게 실제로 뒤집어 씌웠던 절도, 무단 침입, 강간 등과 같은 혐의들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혐의 아래 재판을 받거나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전혀 없이 린치를 당했던 흑인들의 생각이나 목소리는 지워지고 폐제되었다. 오직 백인들의 생각과 목소리만 전해졌으며 진실은 대부분 감춰졌던 것이다.<sup>15)</sup> 이런 점에서 화자가 매달린 “올리브 나무”는 「13층 창문에 매달린 여자」의 배경인 “시카고”처럼 억압과 침묵이 강요되는 공간이자, “13층”처럼 서발턴 주체의 발화가 시작되는 공간으로서 역사적이면서도 상징적이라고

---

15) 흑인 남성들은 주로 젊고 연약한 백인 여성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린치를 당했다. 그들의 시인은 다른 백인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된 군중에게 공개되어 조롱거리가 되었다. 종종 발가벗겨져 매달리기도 하고 샘 호스(Sam Hose)나 제시 워싱턴(Jesse Washington)처럼 훼손되어 불태워지는 경우도 있었다. 20세기 초, 중반까지 미국 남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성행했던 이런 잔인한 행위들이 백인 남성의 흑인 남성에게 대한 성기 공포증(paranoia) 때문이었다는 흥미로운 분석도 있다. 자세한 논의로는 David Friedman, *A Mind of Its Own: A Cultural History of the Penis*, 128-135를 참고할 것.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 공간에 목 매달린 화자가 자신의 사적 공간, 즉 가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그녀의 가정은 남성적 헤게모니 혹은 가부장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다. 화자의 집은 “13층에 매달린 여자”의 13층 아파트와 달리 화자가 돌아가 지키고 싶은 이상적인 공간으로 묘사된다. 이 집은 어릴 때부터 춤에 소질이 있는 화자로 하여금 “보름달 빛 아래서, 혹은 이른 아침 연인의 무릎 위에서 춤을 추고 싶게 하는” 곳, 그녀의 “아기가 자신과 같은 여성이 되는 것을 보고 싶은” 소박한 꿈을 지닌 곳이다(11). 또한 “13층에 매달린 여자”에게 “일어나, 일어나”라고 말했던 “거대한 빛의 남자들”과 다르게, 화자의 연인이 “가서 자”(go to sleep)라고 화자에게 부드럽게 종용하는 공간이다(11). 화자의 연인은 그들이 “집들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들을 몸에 지니고” 있고, “너무나 오랫동안 괴물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자 애썼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자야 한다고 한다(11). 여기서 “괴물들”은 밤마다 “불타는 십자가”(crosses burning)를 든 채 말을 타고 흑인 마을에 출현하여, 그들을 위협하거나 납치해 린치를 가하는 KKK를 가리키는데, 화자와 화자의 연인은 KKK가 그들의 집에 “뿔가를 집에 던져” 위협해도 서로를 의지한 채 잠든다(11). 이렇게 폭력으로부터 잠시나마 평화를 주는 화자와 연인의 집은 이 두 주체에게 특별한 사적 공간인 것이다.

결국 화자가 KKK에 납치되고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 “나는 영영 깨어나지 않았다”(11)고 한탄하는 것은 서발턴 주체의 사적 공간이 공적 억압과 폭력에 의해 파괴되어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생생히 일깨운다. 사적 공간을 지킬 수 없는 이 여성의 무력함은 자신의 연인과 아기를 묘사하는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된다.

..... 길 저쪽 나무들 사이로 부엌 불  
이 켜져 있고, 내 연인은 내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저녁을 준비

하고, 아기는 그녀의 젖을 찾아 칭얼대는 것이 보인다. 보름달이 부푼 열매처럼 하늘에 걸려 있다.

발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죽음의 나무에서 멋대로 춤춘다.

..... Down the road through the trees  
I see the kitchen light on and my lover fixing supper, the baby fussing  
for her milk, waiting for me to come home. The moon hangs from the  
sky like a swollen fruit.

My feet betray me, dance anyway from this killing tree. (12)

목 매달린 화자와 평화로운 저녁 집의 풍경, 그리고 올리브 나무에 “열매”처럼 매달린 화자의 몸과 “보름달” 등 이미지리의 연속적인 병치는 화자의 마지막 순간의 비극성을 잘 보여준다. 특히 화자가 목 매달려 숨이 끊어지기 직전 고통스럽게 발버둥치는 자신의 모습을 “춤[추]”듯이 묘사하는 것은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이 이미지리는 자신의 춤추는 발이 자신을 “달콤한 것들이 자라는 곳으로”(where the sweet things grow) 데려갈 줄 알았지 “이 나무는 아니[었다]”(But not this tree)는 화자의 말과 함께 자신의 꿈이 끝난 것에 대한 좌절감과 그 꿈에 대한 여전한 미련을 동시에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조의 시는 흑인 화자의 네러티브에 토착민 구전 전통에 관한 암시를 교묘히 섞으면서 화자의 매달린 몸을 “13층에 매달린 여자”의 몸처럼 특수한 타자의 것으로 보여준다. 연인의 말처럼 화자는 “많은 이야기들을 몸에” 지녔는데 그 이야기들은 토착 미국인 구전 전통처럼 글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화자가 목 매달린 순간 그 이야기들도 소멸될 순간에 있는 것이다. 린치는 화자와 같은 서발턴 주체가 몸에 지닌 “이야기,” 즉 그들의 역사를 지워 온 미국의 지배적인 네러티브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주목할 점은 시의 종결구에서 화자의 아기가 “저녁을 준비하는”

연인의 “젓을 찾아 칭얼”대는 모습을 통해 그녀의 퀴어(queer)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흑인 퀴어 여성으로서 화자가 겪었을 이중적 편견과 억압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스피박은 서구의 남성적 네러티브 혹은 백인 페미니스트들이 “레즈비언 몸의 아름다움을 계획적으로 감추는”데 공모해왔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퀴어를 서발틴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In Other worlds* 152). 따라서 화자의 매달린 몸은 흑인 퀴어 여성 서발틴의 다른 몸이라고 할 수 있다. KKK가 주로 흑인과 성적소수자들(LGBT)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화자가 린치 당한 이유가 그녀의 젠더 정체성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하조가 어떤 식으로 재클린 피터스의 서발틴적 삶을 상상하고 재구성했는지를 추측하게 하는 것이다. 이 시가 실린 시집 『미친 사랑과 전쟁 속에서』가 주로 레즈비언 연인에 대한 사랑, 미움, 질투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 한다.<sup>16)</sup> 젠더의 측면에서 시인은 자신을 「이상한 열매」의 화자 또는 재클린과 증첩시킨다고도 할 수 있는데, 화자가 시의 오프닝에서 “내가 쓰고 있는 시에 대해 생각하려고 들판에서 산책하다가”(taking a walk in the fields to think about this poem I was writing) 변을 당했다며 자신이 시인인 듯이 말하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11).

결론적으로 「이상한 열매」에서 사적 공간의 평화로운 모습과 공적 공간의 비극적 모습이 병치되는 것은 분명 정치적이다. 굿맨(Jenny Goodman)이 지적하듯이 하조의 시는 결코 “나”라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공적인 영역을 지향하여 정치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다(40). 시인은 이 시를 통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라는 이른바 제 2차 페미니즘 운동의 슬로건을 비틀어 표현하길 원했을 것이다. 시의 화자(혹은 재클린)처

16) 이런 시적 주제는 오드리 로드와 준 조던(June Jordan)의 영향뿐만 아니라, 하조 자신이 양성애자인 것에서 기인한다. 하조의 퀴어적 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연성, 「조이 하조의 시에서의 에로틱한 사랑—그 양가적 이미지러를 중심으로」를 참고할 것.

럼 공적 공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발화하고자 하는 서발턴 여성은 더 큰 희생, 즉 평화로운 사적 공간을 잃거나 죽음을 맞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부바네스와리 바두리가 자살을 통해서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듯이 죽은 후에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난 노래하고 싶어. 담배 피우고 싶을 뿐이야”(I need a song, I need a cigarette)라며 최소한의 인권에 대해 호소하는 이 흑인 여성 인권운동가의 목소리는(11), 여성의 개인성, 주체성의 적극적인 표출, 남성과의 동등한 권리를 외치던 백인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절박하게 울린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이상한 열매」는 자신의 젠더 정체성, 일상의 삶과 일을 지키고자 했던 흑인 여성 서발턴의 “꿈”이 가부장적, 이성애적 지배 질서와 어떻게 충돌하고 억압되는지 잘 보여주는 동시에 저항적 목소리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이다.

#### IV. 마치며

본 논문은 「13층에 매달린 여자」와 「이상한 열매」를 서발턴 개념을 통해 읽었다. 물론 두 시는 각기 다른 역사와 배경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식민주의와 가부장제의 억압과 폭력으로 희생된 서발턴 여성의 역사와 목소리라는 공통의 주제를 공유한다. “13층에 매달린 여자”는 미 연방정부의 이주정책을 따라 시카고로 이주해 대도시의 삶, 출산, 가사 노동, 남성들의 억압, 깨어진 가정 등의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정체성을 상실한 토착민(오지브웨이) 여성을 가리킨다. 3 세계 여성 예술인으로서 하조는 이 여성이 비록 직접 발화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매달린 모습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를 이끌어 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서발턴 주체의 소통과 연대의 가능성을 형상화한다. “올리브 나무”에 목 매달린 여자는 자신의 정체성, 가정과 일

을 지키고자 했지만 백인 우월주의와 가부장적 편견 아래 린치당한 흑인 퀴어 인권운동가(재클린)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시인은 남성 시인 미어 로폴의 「이상한 열매」에서는 들리지 않았던 린치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해 낸다. 목 매달린 채로 침묵 당하기 보다는 폭력을 강력히 비판하며 자신의 인권을 변호하는 그녀의 독백은 깊은 울림을 준다.

목소리의 직접적인 발화라는 측면에서 1990년에 출판된 「이상한 열매」는 1983년의 「13층에 매달린 여자」보다 진일보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는 시의 결말을 놓고 보면 7년 전 시의 토착 미국인 여성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인종주의적 논란, 그리고 중동 지역,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침묵을 강요당하는 여성들, 유린되는 그들의 인권은 이를 시사한다. “매달린” 여성들의 모습은 시적 은유로만 그치지 않고 지속되는 서발턴 여성 주체의 상황을 비추는 현실성, 현재성을 지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13층에 매달린 여자」와 「이상한 열매」는 토착 여성 시인이자 지식인으로서 하조의 시학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지 잘 보여준다. “목소리 없는 주체에게 목소리를 주어 그것이 들리게 하는 것”이다.



## Works Cited

- 김성훈. 「“기억해, 샌드크리크를”: 사이먼 J. 오티즈의 『샌드크리크로부터』와 구전 전통, 그 저항과 희망의 시학」. 『현대영미시연구』 23.1 (2017): 35-75.
- 최동오. 「조이 하조의 『그녀에게는 말 몇 필이 있었다』: 생존의 노래」. 『문학과 환경』 10.1 (2011): 173-188.
-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 Coltelli, Laura. Ed. *Winged Words: American Indian Writers Speak*. Lincoln: U of Nebraska P, 1990.
- Goodman, Jenny. “Politics and the Personal Lyric in the Poetry of Joy Harjo and C. D. Wright.” *MELUS* 19.2 (1994): 35-56.
- Green, Rayna. “The Pocahontas Perplex: The Image of Indian Women in American Culture.” *Massachusetts Review* 16 (1975): 698-714.
- Gunn Allen, Paula. *The Sacred Hoop: Recovering the Feminine in American Indian Traditions*. Boston: Beacon P, 1986. Print.
- Harjo, Joy. *In Mad Love and War*. Middletown CT: Wesleyan UP, 1990.
- \_\_\_\_\_. *She Had Some Horses*. New York: Thunder’s Mouth, 1983.
- \_\_\_\_\_. “The Creative Process: ‘The Woman Hanging From the Thirteenth Floor Window.’” *Wicazo Sa Review* 1.1 (Spring 1985): 38-40.
- Holmes, Christine. “‘This Woman Can Cross Any Line’: Feminist Tricksters in the Works of Nora Naranjo-Morse and Joy Harjo.” *Studies in American Indian Literatures*. 7.1 (1995): 45-63.
- Jaskoski, Helen and Joy Harjo. “A MELUS Interview: Joy Harjo.” *MELUS* 16.1 (1989-1990): 5-1.
- Lang, Nancy. “‘Twin Gods Bending Over’: Joy Harjo and Poetic Memory.” *MELUS* 18.3 (1993): 41-49.
- Lorde, Audre. *Sister Outsider: Essays and Speeches*. Berkeley: Crossing Press, 2007.
- Ludlow, Jeannie. “Working (In) the In-Between: Poetry, Criticism, Interrogation, and Interruption.” *Studies in American Indian Literatures* 6.1 (1994): 24-42.
- Meeropol, Abel. “Strange Fruit.”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5.4 (2006): 902.

- Smith, Andrea. "Native American Feminism, Sovereignty, and Social Change." *Feminist Studies* 31.1 (2005): 116-132.
- Spivak, Gayatri Chakravorty.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 Cambridge: Harvard, 1999.
- \_\_\_\_\_. "Can the Subaltern Speak?" Patrick Williams and Laura Chrisman, eds.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A Reader*. New York: Columbia UP, 1994. 66-111.
- \_\_\_\_\_. "French Feminism in an International Frame." *Yale French Studies* 62 (1981): 154-184.
- \_\_\_\_\_. *In Other Worlds: Essays In Cultur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1987.
- \_\_\_\_\_. "Teaching for the Times." *The Journal of the Midwest Modern Language Association* 25.1 (1992): 3-22.
- Warrior, Robert. "The Subaltern Can Dance, and So Sometimes Can the Intellectual." *Interventions* 13.1 (2011): 85-94.

- 논문 투고일자: 2017. 11. 30
- 심사 완료일자: 2017. 12. 19
- 게재 확정일자: 2017. 12. 26

Abstract

**Women “Hanging”: Subaltern, Voices, and Joy  
Harjo’s Poetry**

Seonghoon Kim  
(Sejong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Joy Harjo’s poems, “The Woman Hanging from the Thirteenth Floor Window” in *She Had Some Horses* and “Strange Fruit” in *In Mad Love and War*, in terms of postcolonial feminism,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concept of the subaltern. The two poems illustrate Harjo’s concern over and efforts for restoring marginalized and silenced voice of women of color in poetic representations. “The Woman Hanging” deals with a story of Native American women from Ojibwe due to the colonial relocation policy, which represents the history of the dispossessed and displaced Native Americans and other minorities as well. Inspired by and taking its title from Abel Meeropol’s same-titled anti-lynching poem, “Strange Fruit,” engages in a story of an African American activist, Jacqueline Peters who was lynched by KKK. Harjo’s poems suggest the possibility and agency of the subaltern who “can speak,” which answers Gayatri Spivak’s question, “Can the Subaltern Speak?”

**Key Words**

Joy Harjo, subaltern, woman, Spivak, voice, Lorde, feminism, postcolonialism